

◎ 연중 제 10주일 강론

마태오의 먼지를 털어주신 예수님

먼지가 폴폴 날리는 이불을 털어본 경험에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그거 은근히 재미있고 스트레스 푸는데 안성맞춤이거든요. 언제 한 번 해 보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절이나 신부가 된 후에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홀로 서기 연습을 매일같이 했던 신학생 때는 이불을 참으로 많이 두들겨 때면서 수많은 먼지들을 털어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신학교를 가득 덮고 있을 때면 어김없이 깔고 덮고 하는 이불가지들을 하나 둘씩 신학교 테라스로 가지고 나와서는 인정사정없이 두들겨 댔습니다. 테니스 라켓으로도 두들겼고 때로는 맨손으로도 두들겼지만, 어쩌다 운이 좋으면 그럴싸한 방망이 하나를 얻어 묵은 먼지까지 모두 털어내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먼지들처럼 제 속에 있는 죄스러운 먼지들까지도 모두 훨훨 날아가기를 바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햇살에 건조까지 시킨 이불을 다시 깔고 덮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낮의 햇살 향기와 자연의 기운이 담겨진 이불은 새롭게 태어난 맑은 영혼과도 같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다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이고 심하게 더럽혀진 이불이라 하더라도 쉽사리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빨아서 다시 덮고 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긴 그 이불이 어떤 이불인데요? 부모님께서 신학교 입학올 축하해 주시며 새로 장만해 주신 아주 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시집, 장가 갈 때 새로 마련해 가는 비단 이불과도 같이 일생에 단 한 번 받아보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이불보다 더욱 애착이 가는 것이었지요. 설령 그 이불이 찢어졌다 하더라도

라도 결코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을 대고
페메어 깎고서라도 사용했을 테니까요. 그 이불
에 대한 애정이 처음에 새로 샀을 때만 있었다
면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 덮고 싶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그 애정은 변하지 않고 계속되었
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이불을 덮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는 마태오가 바로 이런 이불과도 같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세리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마태오. 그래서 사람들의 온갖 험담과 욕설, 저주의 언사로 얼룩진 그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불러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음식까지 나눠 주셨습니다. 마태오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세리로 살아가고자 결심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가다보니 어쩔어쩔해서 세리가 되었을 테고,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유다인들은 세리들을 대할 때 창녀들과 같은 죄의 무게로 그들을 판단하고 죄악시켰다고 합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서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인간 말종이 바로 세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 중 상 죄인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유다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마태오였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따뜻한 햇살과도 같은 부르심을 주셨고, 사람들이 던졌던 비난과 저주 때문에 그의 마음속의 쌓였던 먼지들을 훌훌 털어주셨으며, 그 때문에 생긴 모든 병들을 깨끗이 치유해주시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마태오가 선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면 그러한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고,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축복된 사도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주님, 제 먼지도 털어주소서.

노성호 신부(수원교구 모산골 본당 주임)

사랑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말들

"힘을 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힘을 얻게 될 테니까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속삭이세요.
그러면 당신도 용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조금없이 "용서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거든요.
그러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파사롭고
푸근해 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요.

"아름다워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 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아름다워지게 될 테니까요.

"사랑해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서로 마음 든든한 사람이 되고 때때로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하여 속마음마저 막막할 때 우리 서로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주고 덜 받음에 섭섭해 말며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먼 회상 속에서도 우리 서로 기억마다 반가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기엔 한 슬픔이 너무 클때 언제고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자리에 오랜 약속으로 머물길 기다리며 더 없이 간절한 그리움으로 눈 시리도록 바라보고픈 사람 우리 서로 끝없이 기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 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깥교회 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드레아 : 매월 첫주일

예수 성심 성월 기도

- 지극히 عزیز인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이 때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주님을 알지도 못함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용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주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세번)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 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교육관 축성식 안내
다음주 미사 후에 (15일) 축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의 초석이 될 이날을 많은 교우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정겨운 담소도 나누며 자축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바뇌기도회 안내
11(수) 오후 7:30 이동기 형제집

◎ 6월 구역모임
▶1구역: 21(토) 오후 6:30 한택중 형제집
▶2구역: 21(토) 오후 6시 교육관
▶3구역:
▶4구역: 27(금) 오후 6시 야외 모임
▶5구역: 21(토) 오후 62시 김영호 형제집
▶6구역: 21(토) 오후 7시 교육관

◎ 감사합니다.
교육관 비품 및 현금을 기증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캐나다안타이어 머니를 모금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직현: 스토브,냉장고 외 다수/ 장명길: 책장 / 김흥식:20“ TV/ 이명희: 잔디기계,다이닝세트등 / 금영희 전자레인지/ 윤명원: 진공 청소기외/ 박재영: 무선 전화기외 /이창열:생수기계/ 박복순: 생수기계/ 이동기 :제습기외/

현금: 박복순(200) 김근호(1000) 정동근(100) 김용하(100) 익명 (100)

◎온타리오 5개 본당 친선 골프대회를 해밀톤 본당이 주최합니다. 공소 교우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6월 17일 오후 1시 Shotgun
장소 : Highland Golf Club
참가비 : \$70(식사 및 기념품 포함)
문의 : 윤명원 행사부장 (h) 519-623-2884

◎ 전례부에서 일립니다
전례 봉사자 명단 작성을 위해 각 구역장님들은 봉사자 명단을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성전건립기금 내는 날입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 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아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칩시다.

◎ 주간 전례
▶6 월 10일(화) 저녁 8시, 연중 제10주간화요일
▶6 월 12일(목) 낮12시, 연중 제10주간목요일
▶6 월 13일(금) 저녁 8시, 성 안토니오사제기념

◎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6월 27일-28일
대상: 유치부 - 6학년, 참가비: \$ 20 (유치부-2학년: 28일 당일)
장소: 성당 및 Confederation Park 수영장
접수: 6월 22일까지 주일학교 교사

◎은혜의 밤
피정날짜: 6월 11일-13일(수-목:오후 7시-10시)
은혜의 밤: 6월 14일(토)
강사 : 정치우(안드레아) 회장
장소 : 예수 성심 천주교회, 신청비 : \$20
문의 : 허길문(알로이시오)905-279-3719

◎꾸리아 모임
레지오 간부들은 매달 셋째 주 예수 성심 성당에 서 실시하는 꾸리아 모임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6월 15일 오후 2시
연락처: 이두희(그레고리오) 416-620-0479

교통 어루만지기

이해는 깊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생긴다.
내가 고통을 받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고통을 받는다.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고통은 몇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이해는 거기에서 생겨난다.

2008-23 2008. 6. 8. 연중 제 10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금,,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건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미 사 전 례

해 설	이우원	차주 해설	박인선
-----	-----	-------	-----

화 답 송	올바른 길을 걷는 이에게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 주리라
-------	----------------------------------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게 하셨도다. ◎알렐루야
-------	---

성 가	
입 당	(25) 사랑의 하느님
봉 헌	(220) 생활한 제물
성 체	(170) 자애로운 예수
퇴 장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독 서	
6 월 8일	박용대 박명옥
6 월 15일	이 민 이활란
6 월 22일	이상재 이향숙

봉 헌	
6 월 8일	노동원 노성은
6 월 15일	박용대 박명옥
6 월 22일	이 민 이활란

복 사	
6 월 8일	구한헌 류지현
6 월 15일	구하람 이수민
6 월 22일	장원영 노승범

2008 년 6월 1일 현금 내역	
주일현금:	\$ 660.00

Total	:	<u>\$ 660.00</u>
-------	---	------------------